

AUTHOR 명신흥 (S. H. Myung)

TITLE 칼빈주의의 근본정신
(Essence of Calvinism)

IN 신학지남(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vol.23 no.1 (February, 1954):21-30

칼빈主義의 根本精神

明 信 弘

칼빈主義의 根本精神을 述하기 爲하여 먼저 칼빈主義의 意義를 살펴볼 必要가 있다. 그것은 칼빈主義라 하는 同一名辭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같지 않은 內容을 意味하는 일이 있는 까닭이다.

第一로 칼빈主義란 칼빈自身の 敎訓을 意味한다. 이것은 가장 狹義의 用法일 것이다. 第二는 더 넓은 意味로 "프로테스탄트"中에도 特別히 改革主義 信仰의 敎理體系를 意味한다. 第三은 가장 넓은 意味로 科學的인 意味 以外에 歷史的 哲學的 社會學的 政治學的인 意味로 使用하는 것이니 卽 칼빈의 影響을 받아 敎會나 神學에 뿐만 아니라 人類歷史와 思想 社會의 秩序와 國家의 政治制度等에 미친 影響의 全體를 意味한다. 우리는 本論 述에 있어서 第三의 意義로 否定하는 것은 아니라 範圍를 第二의 意義로 局限하여 論하려 한다.

칼빈主義의 根本精神은 무엇인가? 이것은 一言으로 簡單히 對答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主權」이 곧 그것이다. 칼빈主義의 神學은 하나님의 主權을 強調하여 이 思想을 中心으로 其他의 모든 問題를 取扱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主權이란 무엇인가? "美國長老 敎會法規概要"의 一節을 引用하면 「하나님의 主權이란 唯一의 永遠不變하시고 全知全能하신 하나님으로 뜻미암아 하나님 自身만이 充分히 아시는 바 完全히 智慧로우시며 기록하시며 사랑하시며 目的을 爲하여 보이는 것이나 보히지 않는 것이나 只今 있는 것이나 將來 있을 것이나 그의 全體를 包含한 全宇宙를 絶對로 親히 支配하시고 統治하심을 意味한다.」(Manual

of Presbyterian Law for Church Officers and Members, 1924 P32) 이같은 意味에서 칼빈主義의 根本精神인 「하나님의 主權은 칼빈主義의 敎理」 또는 「神學의 全體」 뿐 아니라 그의 敎訓을 繼承하고 活用하는 政治 藝術 哲學 其他를 처음부터 끝까지 支配하는 바 根本的인 原理이다. 그러나 우리는 本論에서 그 範圍를 縮少하여 하나님의 主權思想이 人間救援에 關한 칼빈主義의 敎訓 特別히 「칼빈主義 五個條特質」(Five Points of Calvinism)과 如何히 關係됨을 次例로 述하고 마지막으로 簡單히 結末을 짓고자 한다.

- 一. 하나님의 主權과 無條件的 預定.
- 二. 하나님의 主權과 制限的 贖罪.
- 三. 하나님의 主權과 全的 墮落.
- 四. 하나님의 主權과 有效的 恩惠.
- 五. 하나님의 主權과 堅忍의 恩惠.

一. 하나님의 主權과 無條件的 預定 (Unconditional Predestination)

預定은 全權 하나님의 絶對主權的인 意志와 目的에 基因한 決定이다. 따라서 預定은 絶對的이며 無條件的인 것이다. 預定은 一般的 意味에서는 部分的이 아니고 全包括的인 것이다. "보에르너"의 말을 引用하면 預定은 「自然界의 行程 歷史의 過程의 가장 細微한 때까지에 미치는 것이다. 創造로부터 審判에 이르기까지 人類歷史上 全般事에 미치고 또한 聖徒와 天使, 邪惡者와 陰府에 있는 惡鬼의 全活動을 包括한다. 이 決定은 已를 있고 또한 將來에 있을 一切의 事件을 同時에 그 原因 條件 機謀 및 關係 方便과 目的에 이르기까지 全部를 包括하고 過去 未來를 通하여 被造的 存在의 全活動 範圍를 包含한다 (L. B. Boetner, The Reformed Doctrine of Predestination, Part I. Chapt. 2).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宇宙 萬物 萬事に 關한 豫定이 아니라 人間救援에 關한 特殊預定 곧 選擇과 하

나님의 主權과의 關係만을 論함이다.

하나님께서 永遠前에 그 기뻐하시는 바 主權的(主權的) 意志를 따라 一定數의 사람으로 救援을 알도록, 구원의 사람들을 그대로 罪中에 버려 두시도록 決定하신 것이 다. 우리의 問題는 그 預定이 條件的인가, 無條件的인가 함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絕對主權으로 決定하신 것이므로 어떠한 條件이 있었을 수가 없다.

“알미니어스”主義者들의 主張은 하나님의 預定, 選擇을 預知에 基因하였다. 하나 萬一 그렇다 하면 그것은 預定이 아니라 預定에 基因한 後定인 것이다. 預定은 信仰이나 德行이나 其他 아무 條件에도 基因함아 아니다. 信仰은 하나님께서 預定하신 者에게 恩惠로 주신 바 贈物이고 善行은 預定된 者가 믿고 悔改함으로 맺는 바 結果 뿐이다. 믿음으로 預選한 것이 아니라 預選함을 입었으므로 믿는 것인바 거룩하므로 預選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도록 預選하신 것이다.

無條件적으로 預定되었다면 預定함을 얻은 사람들은 感謝하려고와 遺棄된 이들은 不平을 가질 것이 아닌가? 그것은 不平을 가짐이 도리어 無理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사람에게나 반드시 罪를赦하여 주시지 않으면 안될 義務가 있는 것이 아니다. 遺棄는 또한 看過 뿐이요 滅亡케 이르도록 預定하신 것은 아니다. 저희들은 自己의 罪로 滅亡하는 것이요 滅亡하도록 預定한 故로 滅亡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같은 진흙으로 더러운 貴한 그릇을, 바라는 賤한 그릇을 지으실 수가 있다. 이는 造物主, 하나님께서 主權적으로 永遠하신 目的을 따라서 決定하신 것이다. 이는 사람이 可宗을 말할 問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主權에 돌릴 것 뿐이다.

二. 하나님의 主權과 制限的 贖罪 (Definite or Limited Atonement)

이 問題에 對하여 알미니어스主義는 對答하기를 그리스도의 죽

으심은 選擇에 든 者나 풀지 못한 者나 다같이 救援하기 爲하여 죽으심이라 한다. 그러나 萬一에 普遍的 救援을 爲하여 죽으셨다면 사람마다 다 救援을 얻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絕對 主權을 行使하여 決定하신 救援의 事業은 결코 徒勞의 헛일이 될 수 없는 까닭이다. 알미니어스主義는 하나님의 計劃이나 目的은 可變的 또는 失敗될 수 있는 것이라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絕對主權을 否定하는 것이 된다. 實際적으로 制限된 者만이 救援을 얻는 것을 보니 贖罪도 制限된 證據다. 他面으로 생각하면 救援을 者와 못얻을 者를 하나님께서 이미 絕對主權으로 定하셨다. 그러면 救援을 爲하여 選定되지 못한 者 또는 將來에 滅亡할 者인 줄을 아시면서 저희들을 爲하여 主께서 贖罪하신 理由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무리를 그의 羊들 곧 永遠前에 하나님께서 絕對 主權으로 擇하신 者들을 爲하여 贖罪하신 것이다.

三. 人間의 全的 墮落 (Total Depravity or Inability)

“아담”은 犯罪함으로 타락하였으며 結果로 하나님에게서 分離되었고 靈적으로 死亡에 이르렀다. 罪의 값은 死亡인 까닭이다.

아담의 犯罪行爲는 全人類의 代表로서의 犯罪行爲이므로 그의 全人類에 미치었다. “아담”의 後孫된 모든 사람은 다 全적으로 墮落되었고 허물과 罪로 죽은 者들이다. (엡二〇. 1) 아무 善도 行할 能力이 없다. 사람이 아직도 法律上 또는 人間道德上 意味의 善을 行할 수 있음을 否定함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眞正한 意味의 善은 되지 못한다. 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榮華롭게 하는 基準에 비추어 그 善의 價値를 評價하여야 하는데 저희들의 善行은 人間的일 뿐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뜻을 順從하거나 그를 榮華롭게 하는 意味의 善은 아닌 것이다. 사람은 自己의 善行으로 自己를 救援할 者 한사

력도 없다. 그는 意志의 自由 卽 道德의 自由를 잃었다. 그는 自然環境에 對한 心理學的 自由나 全能하사 萬事를 豫定 하시는 하나님의 意志에 對한 自由 곧 神學的 自由를 喪失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道德的 自由 곧 人間의 善 目的을 實現하는 自由를 完全히 잃었다. (Bouma, Reformed Ethics. Chapter 3.)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榮華롭게 할 수도 없다. 그는 願하는 善을 行할 수 있는 自由만이 남아 있는 者이다. 그는 道德적으로 腐敗하고 盲目이 된 者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다. 이와 같이 罪的으로 墮落된 者가 어떻게 自己를 救援할 수 있는 功德을 세울 수가 있겠는가? 그가 救援함을 얻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主權的 恩惠로 말미암지 않으면 不可能한 것이다. 그는 救援을 請할 아무 權利도 없다. 唯一의 希望은 하나님의 主權的 恩惠로 救援하여 주심으로 能히 살 수 있는 唯一의 길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永遠히 滅亡한 것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主權을 發動하사 永遠히 滅亡한 者 중에서 一定 數의 人間을 救援하시는 것이다.

그가 靈的 活動인 善行을 할 수 없음은 靈적으로 죽은 까닭이다. 하나님과 分離된 그는 다시 살기 前에는 아무 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의 救援은 다시 살기 前에는 아무 것도 있을 수 없다. 그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가. 或은 甦生의 目的을 達하기 위하여 協力할 수 있는가? 죽은 사람은 自力으로는 自己甦生에 아무 힘도 쓸 수 없다. 오직 超自然的 他力으로 말미암아서만 可能하다. 곧 하나님의 主權的 再創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罪惡으로 말미암아 죽은 그를 重生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人間의 아무 協력을 要할 바 아니요 오직 神靈의 自主的 役事로 말미암는 것이다. (Monergism) 墮落한 사람은 허물과 罪로 죽은 者일 뿐 아니라 奴隸가 된 者이다. 죄의 종이며 “사탄”의 종이

된 者이다. 自力으로는 解放을 얻을 能力이 없다. 解放을 얻을 길이 있다면 全能하신 하나님이 主權적으로 그의 萬能의 能力을 發動하시지 않으면 不可能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主權을 發動하사 다같이 奴隸된 사람들 중에서 一定數의 사람을 釋放하시는 것이다.

四. 하나님의 主權과 有効的 恩惠 (Efficacious or Irresistible Grace)

有効的 或 不可抗的이라 함은 強制的 또는 壓制的으로 人間의 自由意志를 거사려 어떤 行動을 取하지 아니하게 못하게 함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信仰告白에 依하면 이것은 「永生에 豫定된 者들을 確實히 부르시고 救援에 이르게 하시며 그의 마음을 밝히사 하나님의 道를 깨달아 頑惡한 마음을 버리고 柔順한 마음을 얻게 하시며 저희의 心志를 다시 새롭게 하시며…… 確實히 “예수 그리스도” 에게까지 나아가게 하신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恩惠를 힘입어 甘心으로 나오게 함은 이롭다.」 하였다. (第十章 一節)

다같은 罪人이로되 하나님께서 救援하기로 豫定된 者는 반드시 그 數대로 다 救援함을 얻는다. 그러나 豫定된 者라도 萬一에 그 自身대로 放任하여 둔다면 如前히 罪의 종노릇하고 如前히 하나님을 拒逆할 것이요 效果的으로 救援에 이룰 者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實際로 救援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 主權을 行使하신다. 하나님께서는 主權적으로 救援을 者들을 부르신다. 이 부르심은 救援으로 말미암는 效果的 부르심이다. 이는 「하나님의 神의 일일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 罪와 悲慘함을 깨닫게 하시며 “그리스도” 알도록 우리 마음을 밝게 하시며 우리 뜻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說教하시 우리로 하여금 福音에서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를 能히 받게 하시는 것이다.」 (小要理 三十一)

어찌하여 더러는 믿고 더러는 믿지 않는가? 이것은 하나님
의 主權에 속한 問題이다. 기록하신 目的과 뜻을 따라서 그
願하시는 바 사람들을 定하신 數대로 거듭나게 하신 까닭이
다. 거듭나는 恩惠는 有効的으로 부르시는 恩惠와 아울러 不可
抗的이다. 하나님의 主權은 失敗할 수 없고 반드시 成功하는 것
이다. 어머니가 낳으매 어린이가 出生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主님이 다시 살려 내시매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
을 수 없었을 것과 같이 聖靈이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는 重生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必然 有効的인
자 不可抗的인 것이다. 이것은 全的으로 聖靈의 單獨的 役軍
(no.ergism)은 사람과 協同하여 하시는 일 (Synergism)은 아
니다. 이것은 全히 聖靈의 創造的 行爲에 依한 異蹟이며 “그리
스도” 안에서 주시는 바 하나님의 主權的 行爲의 產物이다.

五. 하나님의 主權과 聖徒 堅忍의 恩惠 (Final Perseverance)

사람은 허물과 罪로 그 心靈이 죽은 자다. 하나님의 主權的
恩惠로 그 罪惡을 通하여 行하시는 再創造 곧 重生의 體驗을
받지 못하면 그가 “그리스도”의 贖罪를 効率的으로 體得할 수
없다. 하나님의 主權的 恩惠로 重生한 자라도 萬一에 사람 그
自體에게만 맡겨 둔다면 마침내 犯罪하고 墮落할 것이며 窮極
的 目的인 完全救援에 이를 자 한 사람도 없다. 人間의 힘만
으로는 到底히 自己의 救援을 完成할 수 없다. 그러나 칼빈
主義에 依하면 하나님께서 重生하게 하신 사람은 한 사람 例外없
이다. 完全救援에 이를 것이며 비록 그가 犯罪하며 墮落하
는 때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恩惠의 길에서 完全히 떨어질 수
없고 마침내 다시 돌아와서 最後救援에 이른다고 가르친다. 그
러면 사람이 自己의 힘으로 自己의 救援을 完成할 자 한 사람
도 없음에 不拘하고 이렇게 重生者마다 最後 救援에까지 이

름은 何故인가? 이는 오직 하나님의 堅忍의 恩惠로 말미암음
이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主權的인 恩惠의 繼續으로 거듭
나게 하신 바 그의 百姓을 그 안에 內住하시는 그의 聖靈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시작하신 生命의 役軍을 繼續하며 完成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主權的으로 불러서 그 手中에 붙드신 百姓을 때
왔을 자는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主權的으로 붙드신 사람을
또한 主權的으로 끝까지 保持하시는 까닭이다. 惡의 權勢나 自
身의 犯罪나 一時的 墮落이라도 決斷코 滅亡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 主權的으로 救援하신 자를 끝까지 保全하심으로
主權的 意志를 貫徹하시고 主權的 目的을 達하시고야 만다.
그러므로 堅忍의 恩惠의 確實性은 하나님의 主權에 基因한 것
이다. 사람 비록 하나님의 恩惠에 協助한다 (C Co. Operate)
할지라도 그것은 原動力이 되지 못하며 協同할 수 있는 힘
까지라도 聖靈께서 배풀어 주심으로 可能한 것이다. 그러므로
堅忍의 恩惠도 重生의 恩惠와 같이 하나님의 主權的인 恩惠物
이다. 알미너 어스主權는 窮極的 救援을 自力으로 解決지 못하
고 받은 바 恩惠를 自力으로 保持하지 않으며 自己의 善行
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重生者라도 滅亡한다고 가르친다. 그러
나 칼빈主義는 어디까지든지 하나님이 主權的으로 새生命을 賦
與하신 사람을 保持하시 主權的으로 繼續되는 恩惠로 말미암아
最後 救援에 이르는 強調하는 것이다.

사람 救援은 全히 三位一體 하나님께서 成就하시는 바요 마
라서 이 事業의 모든 榮光을 全히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것
이다. 하나님께서 主權으로 預行하시고 主權的으로 選擇하시
고 主權的으로 救援하시고 主權的으로 부르시고 主權的으로 重
生하게 하시고 主權的으로 保持하시고 主權的으로 窮極的 救援
에 이르게 하신다.

宗教의 根本理念은 어디 있는가? 宗教는 하나님을 中心으

로 할 것인가? 사람을 中心으로 할 것인가? 사람이 하나님을 爲함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爲함인가, 곧 神本主義인가, 人本主義인가? 칼빈主義는 이러한 問題에 對하 가장 純粹하고 正確하고 聖書 的인 解를 주는 것이다. 宗教의 根本精神은 人間中心 또는 사람을 爲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中心 또는 하나님을 爲한 것이다. 이는 宗教의 人間內 主觀인 方面을 否定함이 아니라 우리는 宗教로 말미암아 生命을 얻고 幸福된 生活에 들어간다. 그러나 決코 그것으로 宗教의 根本觀念을 삼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本末을 顛倒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被造物인 人間이 造物主 하나님을 中心으로 하고 그를 榮華롭게 할을 最高 目的으로 하는 宗教만이 참된 宗教일 것이다.

一七八九年을 轉換期로 하여 近代主義의 暴風은 基督敎를 向하여 正面을 襲來하였다. “볼헤어”가 打倒者人이라고 함은 “그리스도” 自身을 向하여 부르짖음이었다. 이것은 無神論의 또는 抗神 精神의 爆發인 바나 後日의 佛蘭西 革命을 일으킨 反宗教思想의 發端的 表現이었다. 그때로부터 近代主義 基督敎는 漸漸 人間中心의 人本主義에 기울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最近에는 人間學的인 神學이 出現한 것이다. 곧 新神學이란 것이다. “그리스도敎”를 이 染病에서 救護할 때는 하나님의 主權을 強調하여 神本主義의 宗教를 가르쳐 주는 칼빈主義라 하면 可說할 것이다. 칼빈主義 神學은 神學이란 두글자가 가르쳐 주는 대로 明確하게 神中心의 神學的 特色을 가지고 있는 神學이다. 이것은 칼빈主義가 三位一體 하나님의 絕對主權을 強調함을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榮光을 그대로 나 그에게 돌리려 하는 目的을 達하고자 함인 까닭이다. 이것은 곧 聖經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真理다. 그러므로 칼빈主義의 根本精神은 곧 聖經의 根本精神이요 따라서 그리스도敎의 根本精神이다.

神學思潮의 最近傾向

일 · 벨 고 프 述
桂 一 勝 博 士 譯

(宗)敎와 神學은 實로 密接한 關係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兩者는 決코 同一物은 아니다. 宗教란 人對神의 關係이나 神學이란 神에 對한 人間의 知識이다. 都大體 宗教가 神學을 벗어낸 것인가, 不然이면 神學이 宗教를 喚起시킨 것인가? 이것은 때때로 論難의 問題가 아닌 바 아니었으나 注 意가 이 兩者의 關係를 考察하건대 그 어느 것도 肯定하기 難한 結論을 가져 온다. 神學과 宗教는 同一한 原因에서 派生된 兩個의 結果로서 神 自體의 存在와 神의 業(에르곤)에 對한 神 自體의 啓示이므로 眞實한 宗教와 眞實된 神學은 함께 그 源泉을 神의 啓示에 둔다. 본디 神은 創世 以來 그의 啓示를 人間에게 顯示시키심을 즐기시고 또

現在에 있어서도 神의 靈감을 받은 “말씀” 중에 그의 啓示를 眞現하시고 계시다. 이 “말씀”을 떠나서 純粹한 宗教란 없고 眞實한 意味의 神學은 있을 수 없다.

참 宗教란 人間의 個人的 또는 集團的 生活分野에서 나타난 神의 特別啓示의 所產物인 것이다. 흔히 世間에는 多色多樣의 宗教가 있고 그 中에는 神의 啓示에 對하여서는 전혀 無知不關의 宗教가 許多하나 많은 사람들은 그의 不充分함을 認定하면서도 그것들을 참 宗教라고 誤解하고 있다. (勿論 그렇게 誤認하는 人士들도 基督敎가 어느 것보다도 優秀한 宗教이란 것을 再論없이 認定은 한다.) 그러나 이 雜多한 宗教들 中에도 宗教로서의 要素가 어느 程度 內包되어 있